

남녀 대학생의 사회적 관계망과 고독감

Social Networks and Loneliness among the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성신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시간강사 姜 星 禧

우석대학교 가정학과

조 교 수 李 聖 姬

Dept. of Home Management, Sungshin Women's University.

Lecturer: Kang, Sung Hee

Dept. of Home Economics, Woosuk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Lee, Sung Hee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networks and loneliness. Subjects of this study are male and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residing in Seoul and Jeonju city. Questionnaires were used and the obtained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SPSS PC+.

The results are as follow: 1) The size of general social networks doesn't show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but at the size of intimate social networks, female students' one is bigger than male students'. And female student's contact frequency via telephone is higher than male students', but the direct contact frequency did not show the difference: 2) The bigger the size of social networks is, and the higher the contact frequency is, the more the amount of social supports female students get. And the bigger the size of social networks is, the more the amount of social support male students get. But among male students, there are no relationships between the contact frequency and the amount of social supports. 3)

The size and contact frequency of social networks is negatively related to loneliness among female and male students. 4) The amount of social supports explains the degree of loneliness at 23% among female students and 18% among male students.

I. 서론

고독감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정서 중 하나로(Weiss, 1973),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이다. 또한 고독은 우울(Hsu, Hailey, Range, 1987), 자살(박우동, 1992) 등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고독감은 심각하고 광범위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또한 신뢰할만한 고독감 척도(Russell, Peplau와 Cutrona, 1980; Schmidt, 1983)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고독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고독감을 다룬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독감의 본질을 파악하거나(구본용, 김재환, 이수원, 장성수, 류완영, 1990; Lopata, 1969; Rokach, 1988; Stuewe-Portnoff, 1988), 심리적 요인과 연결지은 연구(김교현, 1990; Bell, 1991; Davis와 Franzoi, 1986)는 많지만, 한 개인이 가진 친밀한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다룬 연구는 외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Arling, 1976; Bell, 1991; Creecy, Berg, Wright, 1985; Stokes, 1985; Stokes, Levin, 1986),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어떠한 학문적 연구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또 그들과 자주 만나며,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때 고독감이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은 다 이해될 수 있는 사실이다.

흔히 연구자들은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고독감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의 성차이에 초점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 아동은 소집단 특히 이자관계로 더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자 아동은 보다 큰 집단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연구(Laosa와 Brophy, 1972),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남성은 관심과 활동의 공유를 더 중시하는 반면, 여성은 친밀감과 신뢰감

을 더 중시한다(Bell, 1981)는 연구로 미루어 보아,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관계는 차이를 보이며, 따라서 고독감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도 남성과 여성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학생들은 발달단계상 청년기 혹은 성인기 초기로 구분된다. 이 시기는 정체감을 획득하고, 가족에 대한 일차적인 애착에서 벗어나, 동성 및 이성 동년배에 몰입하는 시기로, 이러한 친밀한 대인관계는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들이 가진 사적이고 친밀한 사회적 관계가 고독감과 가지는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 사회적 관계에 관한 접근법들 중 하나로, 1980년대 이후 사회적 관계망을 개인의 심리적 복지와 연결시킨 연구(Cohen, 1985; House & Kahn, 1985; Stokes, 1985; 성선진, 1996; 신미화, 1996; 이영자, 1994)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을 다루는 학문분야나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기는 하나, 흔히 사회적 관계망은 한 개인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Rands, 1988:128)이라거나, 특정 개인이나 부부가 알고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집합체(Milardo, 1988:20)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된다. Milardo(1988:22-23)는 사회적 관계망의 구성원을 파악하는 측정방법의 하나로 친지관계망(networks of close associates)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친지관계망이란 개인이 중요하고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합체를 말하며,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응답자들에게 당신의 인생에 있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을 몇 명까지 제시하라는 식으로 질문한다. 많은 연구들(Marsden, 1987:124; Moore, 1990:728; O'Connor, 1990:297-298; 오승환, 1990:52)에서 친지관계망의 크기는 5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관계망과 고독감을 관련시킨 연구(Chatters, Taylor & Neighbor, 1989; Stokes, 1985; Stokes & Levin, 1986)들이 주로 이러한 개념의 사회적 관계망을 사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적용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은 형태(form)과 내용(content)으로 대별된다. 형태는 구조(structure)라고 하며, 내용은 기능(function) 혹은 지원(support)라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로는 크기와 접촉빈도를 다룰 것이며,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으로는 사회적 지원을 다룰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란 한 개인이 가진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의 숫자를 말하며, 접촉빈도란 한 개인이 그의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과 전화, 편지, 방문 등을 통하여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가를 말한다.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 혹은 사회적 지원이란 사회적 관계망을 타고 전달되는 사항, 예컨대 호의나 정보같은 것(강성희, 1996:9),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가족, 친구, 동료 등과 같은 중요한 타자들이 개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기능(이미숙, 1996:450)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와 사회적 지원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들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몇몇 연구들(Fischer, 1983:125; Moore, 1990:733; 오승환, 1990:75)에서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친하게 지내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되는 사람의 수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Chatters와 그의 동료들(1989:671)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사람(helper)의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다고 하였다. 또한 Stock과 그의 동료(1986:1070-1071)는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그들의 삶에서 중요하며 적어도 한달에 한번 이상 만나는 사람들의 수와 특히 친하고 가깝다고 느끼는 사람의 수는 여

성이 남성보다 더 많다고 하였다.

접촉빈도에 있어 남녀간의 차이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Hay(1986:308)는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과의 접촉빈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고 하였다. 또한 Power(1976:742)는 전반적인 친구들과의 접촉빈도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지만, 절친한 친구와의 접촉빈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고 하였다.

몇몇 연구들(Ishii-Kuntz, Seccomb, 1989:785; 성선진, 1996:64)에서 흔히 여성은 남성보다 절친한 친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를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으로 나누어 보면, 정서적 지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받지만(Aukett, Ritchie & Mill, 1988:63; Fischer, Sollei, Sorell & Green, 1989:529; Marks, MacLanahan, 1993:490; Power, Bultena, 1976:745), 도구적 지원은 남성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Fischer, Solle, & Sorell, 1989:529; 강성희, 1996:94; 이성희, 1993:79).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으로부터의 지원의 정도는 또한 그 크기와 접촉빈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를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관련지은 연구는 아니나, 우리 나라의 연구로 최정아, 서병숙(1992:72)은 도시 남녀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망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가족, 친척, 친구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여, 관계망의 크기가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관계에 있음을 제시하였다. O'Bryant(1988:180)는 최근에 과부가 된 60세 이상의 미국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접촉 빈도가 형제자매로부터의 지원 정도를 가장 강력하게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Hogan, Eggebean과 Clogg(1993:1448)은 성인 자녀와 노부모 간에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모든 형태의 도움을 많이 주고 받는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의 연구로 오승환(1990:81)은 도시 빈민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그들이 가장 친하다고 응답한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과의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특히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하였다.

2. 고독감

Weiss(1973:44)에 따르면 고독은 홀로 있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요구되는 어떤 관계 또는 일련의 관계망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다. 또한 Peplau와 Perlman(1981)은 고독감을 "한 개인이 원하는(desired) 사회적 관계와 그가 성취한(achieved) 사회적 관계간의 차이에서 유발되는 주관적 경험"이라고 보았다.

고독감의 성차를 다룬 연구들은 그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외롭다고 한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Stokes과 Levin(1986:1072)은 남자대학생보다 여자대학생이 유의하게 더 외로워한다고 보고하였다. Renshaw(1992:546)도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남녀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더 고독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오재순(1988:89)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외롭다고 하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더 외롭다고 한 연구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Creecy, Berg, Wright(1985:489)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더 고독하다고 하였다. 또한 306명의 남녀 대학생과 264명의 대학생이 아닌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Schmidt와 Sernat(1983:1044)도 남성이 여성보다 더 외롭다고 하였다. 한편 173명의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연구한 Bell(1991:49)에 따르면 고독감을 느끼는 정도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3. 사회적 관계망과 고독감

Daniel Perlman(1988:198)은 전생애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계망과 고독감을 다룬 여러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기와 젊은 성인기의 남녀들은 발달적 특성상 친구들로부터 인기가 있어야 하고, 이성교제를 해야 하며, 또 무엇인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여기지만, 이러한 사회적 기술을 완전히 개발시킬 수 있는 젊은이들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고독감을 경험하기 쉽다고 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의 특성에 따라 고독감이 어떻게 달

라지는가를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 두가지 부류로 나뉜다. 첫째는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나 접촉빈도와 같은 객관적 특성에 따른 고독감의 정도를 다룬 것이고, 둘째는 사회적 관계망에서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에 따른 외로움의 정도를 연구한 것이다.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 접촉빈도를 고독감과 연결 지은 연구들은 대체로 그 크기가 크고, 구성원들과 자주 접촉할수록 고독감을 덜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Asher, Hymel, Renshaw(1984:1460)는 522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많을수록 덜 고독하였다고 하였다. Stokes(1985:985)은 97명의 남자대학생과 82명의 여자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고독감은 특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숫자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Stokes과 Levin(1985:1071)은 또한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삶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덜 고독하다고 하였다. Arling(1976:761)은 904명의 여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방문할 수 있을만큼 친한 이웃의 많을수록, 그리고 친구들이 근처에 많이 살수록 덜 고독하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연구로, 박의연, 유영주(1989:208)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남녀노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노인정 모임, 종교 모임, 교양학습 모임, 사교 모임, 취미나 운동 모임, 동네 모임 등에 많이 참여할수록 소외감이 적다고 하였다.

Wheeler, Nezlek, Nezlek(1983:946)은 86명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루에 10분 이상 접촉한 상호작용의 횟수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남녀 대학생 모두 여성과 접촉한 횟수가 많을수록 고독감이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Essex와 Nam(1987:96)은 50세 이상의 여성노인 48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가족을 보는 빈도와 고독감은 약한 부적 상관관계($r=-.19$)를 가지고 있었으나, 친구를 보는 빈도와 고독감은 상관관계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Arling(1976:761)은 409명의 여자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형제자매, 조카를 비롯한 여러 친척들과 자주 접촉하는 것이 고독감과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한편 사회적 관계망의 기능, 즉 사회적 지원과 고

독감을 연결지은 연구로, 신미화(1996:30)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는 부적 상관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Russell 등(1984:1318)은 505명의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사회적 고독감은 친구관계의 결핍에 의해, 정서적 고독감은 이성관계의 결핍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망과 고독감을 연결지은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며, 본 연구의 결과가 이를 다소나마 보충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크기와 접촉빈도)와 기능(사회적 지원)이 고독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 : 성별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접촉빈도는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2 : 성별에 따라 사회적 지원과 고독감은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3 :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접촉빈도에 따라 사회적 지원의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접촉빈도에 따라 고독감의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5 : 사회적 지원이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2. 조사도구

측정도구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로는 크기와 접촉빈도를 측정하였다. 크기는 일반적인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가족을 제외하고 귀하에게 의미있는 사람으로,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왕래가 있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 질문하였다. 이러한 질문은

Johnson과 Milardo(1984:895)가 사회적 관계망을 '그들이 당신의 개인생활에 대해 가지는 견해가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정의내린 것, 또한 몇몇 연구자들(Fisher, 1977; Leslie, Gradey, 1985; Riley, Cochran, 1985; Shulman, 1975; Wellman, 1979; Milardo, 1988:22에서 재인용)이 사회적 관계망을 단순히 '같이 살지 않는, 한 개인의 가장 가까운 친지들'이라고 정의내린 것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심리적 친밀감 뿐 아니라 실제적인 접촉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한정하기 위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왕래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였다. 특히 친밀한 사람의 수를 측정하기 위해 '각별히 친하며 어려울 때 반드시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의 수'가 몇 명인지도 질문하였다. 이는 특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confidant)의 수가 많을수록 고독감을 덜 느낀다는 외국의 선행연구(Stockes, 1985:985; Stokes, Levin, 1986:1071)에 근거한 것이다. 접촉빈도는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의 전화를 통한 간접접촉과 만남을 통한 직접접촉의 빈도를 질문하였다. 사회적 지원 척도는 박지원(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모두 2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사회적 지원 척도의 문항 내용은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애정, 지지, 배려와 같은 정서적 지지, 조언, 충고, 문제해결방안 제시와 같은 정보적 지지,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물질적 지지, 직접 일을 거들어 주거나, 도와줄 사람을 물색해 주는 일손의 지지와 같은 것들로 구성되었다. 고독감 척도는 수정된 UCLA 고독감 척도(Russell, 1980)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모두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고독감 척도의 문항 내용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 마음을 깊이 털어놓을 수 있으며, 필요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느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느낌, 행복하다는 느낌 등을 묻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적 지원과 고독감은 5점 척도로 평가되었으며, 그 범위는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에 이른다. 본 조사에 있어서 척도의 신뢰도는 사회적 지원이 .94, 고독감이 .92로 높게 나타났다.

3. 조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전주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1999년 3월에서 4월에 걸쳐 모두 700부의 설문지를 분포하였다. 그 중 회수되지 않은 것과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자료 분석에 사용된 것은 687부였다. 이 중 378부가 여자대학생의 것이었고, 나머지 309부가 남자대학생의 것이었다. 응답자의 연령은 18-20세가 282명(41.6%), 21-25세가 306명(45.1%), 26-30세가 84명(12.4%), 31-35세가 6명(0.9%)로, 평균연령은 21.9세였으며, 그 범위는 18세에서 35세에 이르렀다.

자료는 SPSS PC+를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전부 대학생이었으므로 다른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다루지 않았고, 다만 성별과 연령별에 따른 빈도와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사

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접촉빈도의 차이는 Chi-square 검정을 하였고,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원과 고독감의 차이는 t-test를 하였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접촉빈도에 따른 사회적 지원과 고독감의 정도는 F-test를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원이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세가지를 다룬다. 우선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접촉빈도, 사회적 지원, 고독감에 있어 성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접촉빈도에 따라 사회적 지원과 고독감이 차이를 보이는가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원은 고독감을 어느 정도 설명해 주

〈표 1〉 성별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접촉빈도의 차이

|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접촉빈도 | | 분 포 | 여 성 | | 남 성 | |
|-------------------|---------------------------------------|------------|----------------------|---------|----------------|---------|
| | | | 빈도(N) | 백분율(%) | 빈도(N) | 백분율(%) |
| 크기 | 가족을 제외하고 나에게 의미있고 한달에 한번 이상 만나는 사람의 수 | 2명 미만 | 148 | (39.2) | 104 | (34.7) |
| | | 3-4명 | 102 | (27.0) | 96 | (32.0) |
| | | 5명 이상 | 128 | (33.9) | 100 | (33.3) |
| | | 계 | 378 | (100.0) | 300 | (100.0) |
| | | Chi-square | $\chi^2=2.36$ | | $\lambda=0.00$ | |
| | 각별히 친하며 어려울 때 반드시 도와줄 사람의 수 | 2명 미만 | 238 | (63.0) | 152 | (50.7) |
| | | 3-4명 | 106 | (28.0) | 112 | (37.3) |
| | | 5명 이상 | 34 | (9.0) | 36 | (12.0) |
| | | 계 | 378 | (100.0) | 300 | (100.0) |
| | | Chi-square | $\chi^2=10.35^{**}$ | | $\lambda=0.01$ | |
| 접촉 빈도 |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의 전화 접촉 빈도 | 거의 매일 | 166 | (43.9) | 76 | (25.3) |
| | | 일주일에 한두번 | 160 | (42.3) | 152 | (50.7) |
| | | 한달에 한두번 미만 | 52 | (13.8) | 72 | (24.0) |
| | | 계 | 387 | (100.0) | 300 | (100.0) |
| | | Chi-square | $\chi^2=28.30^{***}$ | | $\lambda=0.04$ | |
| |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의 직접 만남 빈도 | 거의 매일 | 128 | (33.9) | 92 | (30.7) |
| | | 일주일에 한두번 | 94 | (24.9) | 108 | (36.0) |
| | | 한달에 한두번 미만 | 156 | (41.3) | 100 | (33.3) |
| | | 계 | 378 | (100.0) | 300 | (100.0) |
| | | Chi-square | $\chi^2=10.27^{***}$ | | $\lambda=0.03$ | |

p<.01, *p<.001

는가를 다룬다.

〈표 1〉은 남녀 대학생의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접촉빈도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를 나타낸다. 우선 '가족을 제외하고 나에게 의미있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사람의 수'에 있어서는 '2명 미만', '3-4명 정도', '5명 이상'의 범주에 남녀 대학생 모두 응답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성별에 따라 크기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각별히 친하며, 어려울 때 반드시 도와줄 사람의 수'에 있어서는 남녀 대학생의 과반수 이상이 '2명 미만'이라고 하였으며, 여자 대학생보다 남자 대학생이 그 크기가 다소 더 큰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친하게 지내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되는 사람의 수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몇몇 연구들(Chatters, Taylor, & Neignbor, 1989:671; Stock, Levin, 1986:1070-1071)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의 전화접촉빈도는 여자 대학생의 경우는 '거의 매일'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43.9%), 남자 대학생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 두번'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50.7%). 그래서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 더 빈번하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의 직접만남 빈도는 전화접촉빈도보다 덜 빈번하였으며, 남녀 대학생 모두 접촉빈도 범주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적어도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의 전화접촉빈도에 있어서만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빈번하다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절친한 친구와의 접촉빈도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는 Power(1976:42)의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이다.

〈표 2〉는 사회적 지원과 고독감의 정도에 있어 남녀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가를 나타낸다. 사회적 지원에 있어 평균값은 여자 대학생이 3.90, 남자 대학생이 3.80으로 꽤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으며,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으로부터의 전반적인 사회적 지원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한 선행연구(Ishii-Kuntz, Seccomb,

〈표 2〉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원과 고독감의 차이

| 성별 | 여성 | 남성 | t값 |
|--------|------|------|--------|
| 내용 | | | |
| 사회적 지원 | 3.90 | 3.80 | 2.44** |
| 고독감 | 2.25 | 2.24 | -.14 |

**p<.01

1989:785; 성선진, 1996:64)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고독감에 있어 평균값은 여자 대학생이 2.25, 남자 대학생이 2.24로 나타나 남녀 대학생 모두 낮은 점수를 보이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고독감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일치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본 연구의 결과는 고독감에는 성차가 없다는 Bell(1991:49)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접촉빈도에 따른 사회적 지원의 정도를 나타낸다. 남녀 대학생 모두 '가족을 제외하고 나에게 의미있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사람의 수'와 '각별히 친하며 어려울 때 반드시 도와줄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 이웃, 자발적 단체 성원, 직장 동료들이 많을수록 성인 남성과 여성 모두 그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높다는 강성희(1996:110-1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의 전화 및 직접 만남 접촉 빈도에 있어서는 여자대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 대학생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 자주 접촉할수록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자 대학생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의 접촉빈도는 사회적 지원의 정도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과의 접촉빈도와 사회적 지원 정도는 정적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O'Bryant, 1988: 180; Hogan, Eggebean, & Clogg, 1993:1448; 오승환, 1990:81)과 부분적으로만, 즉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만 일치되는 결과이다. 남자대학생에게 있어 이런 결

〈표 3〉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접촉빈도에 따른 사회적 지원의 정도

|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접촉빈도 | | 사회적 지원 | 여 성 | | 남 성 | |
|-------------------|--|------------|------------|--------|-----------|--------|
| | | | 평균(M) | DUNCAN | 평균(M) | DUNCAN |
| 크기 | 가족을 제외하고 나에게 의미있고 한달에 한번 이상 만나는 사람의 수 | 2명 미만 | 3.79 | B | 3.57 | B |
| | | 3-4명 | 3.80 | B | 3.93 | A |
| | | 5명 이상 | 4.09 | A | 3.92 | A |
| | | F | F=18.47*** | | F=7.12*** | |
| | 각별히 친하며 어려울 때 반드시 도와줄 사람의 수 | 2명 미만 | 3.81 | B | 3.65 | B |
| | | 3-4명 | 4.03 | A | 3.89 | AB |
| | | 5명 이상 | 4.07 | A | 4.16 | A |
| | | F | F=10.69*** | | F=7.55*** | |
| 접촉 빈도 |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의 전화 접촉 빈도 | 거의 매일 | 3.96 | A | 3.76 | |
| | | 일주일에 한두번 | 3.92 | A | 3.87 | |
| | | 한달에 한두번 미만 | 3.61 | B | 3.69 | |
| | | F | F=12.57*** | | F=1.34 | |
| |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의 직접 만남 빈도 | 거의 매일 | 3.99 | A | 3.86 | |
| | | 일주일에 한두번 | 3.82 | B | 3.87 | |
| | | 한달에 한두번 미만 | 3.87 | B | 3.67 | |
| | | F | F=4.04** | | F=2.02 | |

p<.01, *p<.001

〈표 4〉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접촉빈도에 따른 고독감의 정도

|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접촉빈도 | | 고독감 | 여 성 | | 남 성 | |
|-------------------|--|------------|------------|--------|-----------|--------|
| | | | 평균(M) | DUNCAN | 평균(M) | DUNCAN |
| 크기 | 가족을 제외하고 나에게 의미있고 한달에 한번 이상 만나는 사람의 수 | 2명 미만 | 2.46 | A | 2.48 | A |
| | | 3-4명 | 2.22 | B | 2.12 | B |
| | | 5명 이상 | 2.01 | C | 2.14 | B |
| | | F | F=22.27*** | | F=6.86*** | |
| | 각별히 친하며 어려울 때 반드시 도와줄 사람의 수 | 2명 미만 | 2.38 | A | 2.40 | A |
| | | 3-4명 | 2.01 | B | 2.12 | B |
| | | 5명 이상 | 2.01 | B | 2.02 | B |
| | | F | F=18.82*** | | F=6.01** | |
| 접촉 빈도 |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의 전화 접촉 빈도 | 거의 매일 | 2.17 | B | 2.10 | B |
| | | 일주일에 한두번 | 2.21 | B | 2.36 | A |
| | | 한달에 한두번 미만 | 2.60 | A | 2.47 | A |
| | | F | F=11.20*** | | F=6.49** | |
| |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의 직접 만남 빈도 | 거의 매일 | 2.10 | B | 2.10 | B |
| | | 일주일에 한두번 | 2.26 | A | 2.34 | A |
| | | 한달에 한두번 미만 | 2.36 | A | 2.33 | A |
| | | F | F=7.10*** | | F=3.05* | |

*p<.05, **p<.01, ***p<.001

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결론 부분에서 다시 다루기로 하겠다.

〈표 4〉는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와 접촉빈도에 따른 고독감의 정도를 나타낸다. 남녀 대학생 모두에 있어 '가족을 제외하고 나에게 의미있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사람의 수'와 각별히 친하며 어려울 때 반드시 도와줄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고독감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수가 많을수록 덜 외롭다는 Asher와 그의 동료들(1984:1460)의 연구와 일치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심리적 복지감의 정도가 높다는 최정아, 서병숙(1992:72)의 연구결과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남녀 대학생 모두에 있어 가장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 전화 및 직접 만남을 통하여 자주 접촉할수록 고독감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촉빈도와 고독감의 부적 관계를 제시한 Wheeler와 그의 동료들(1983:946)의 연구와 일치되는 것이다.

〈표 5〉는 사회적 지원이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낸다. 사회적 지원의 정도는 여자 대학생의 경우는 약 24%, 남자 대학생의 경우는 약 18% 정도를 설명해 주고 있어, 사회적 지원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고독감을 설명하는 데 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있어 각별히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수는 2명 내지 3-4명 정도로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여자보다는 남자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수가 약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녀 대학생 모두 자신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접촉하고 있었으며,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더 자주 접촉하고 있었고, 이는 특히 전화접촉의 경우 두드러졌다. 둘째,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친밀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였으나, 고독감에 있어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미약하나마 여자 대학생의 고독감 점수(2.25)가 남자 대학생의 고독감 점수(2.24)보다 더 높았다. 셋째,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남녀 대학생 모두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접촉빈도는 여성의 경우에만 관련되어 있었다. 즉 여자 대학생은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과 자주 만날수록 그들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으나, 남자 대학생이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지원의 정도는 접촉빈도와는 무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남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친밀한 개인과의 빈번한 접촉보다는 다양하고 넓은 인간관계가 보다 더 지지적인 것으로 지각되는 것으로 보

〈표 5〉 사회적 지원이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력

| 성별 | 계수 | B | SE B | T | SIG T |
|----|------------------------------------|--------|-------|---------|-------|
| | 변인 | | | | |
| 여성 | 사회적 지원 | -.6228 | .0573 | -10.858 | .0000 |
| | (constant) | 4.6728 | .2251 | 20.756 | .0000 |
| | R ² =.23870 F=117.89*** | | | | |
| 남성 | 사회적 지원 | -.4327 | .0755 | -5.733 | .0000 |
| | (constant) | 3.8964 | .2900 | 13.473 | .0000 |
| | R ² =.18171 F=32.41*** | | | | |

***p<.001

이다. 넷째, 남녀 대학생 모두 교류하는 대인관계의 수가 많고 자주 접촉할수록 덜 외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남녀 대학생 모두 사회적 지원은 그들이 느끼는 고독감을 설명해줄 수 있는 의미있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논의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관계망 구성원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의 정도는 여자 대학생이 남자대학생보다 높지만, 고독감에 있어서는 성차가 없었다. 이는 고독감을 평가할 때 남자들은 집단지향적 판단기준을 사용하고, 여자들은 이가관계의 질에 더 집중하기 때문이다(Stokes, Levin, 1986:1069). 즉 남자들은 보다 더 고도로 서로 연결되고 응집력 있는 친구집단을 가졌을 때 덜 외롭다고 보고하는 반면, 이러한 밀도높은 친구관계망은 여자들의 고독감과 거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친밀한 관계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은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더 높지만 남녀 대학생 간에 고독감에서 차이가 없게 나타난 것은 친밀한 관계로부터의 사회적 지원은 여자의 고독감을 효과적으로 줄여 줄 수 있으나, 남자의 고독감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는 남자 대학생의 고독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나, 접촉빈도는 그렇지 못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면이다.

둘째, 여자들과 남자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계의 특성이 이처럼 다를 경우, 두 남녀가 결혼이라는 장에서 만났을 때 필히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결혼과 관련된 것이 아닐지라도 친밀한 인간관계는 여자 뿐 아니라 남자들에게 있어도 심리적 복지감과 긴밀히 연관된다. 따라서 남자들에게 있어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예비부부 교육 등에 반영되어야 할 점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모두 대학생들이었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회적 관계망이 고독감에 중요한 변인이라는 결과는 모든 연령층, 모든 생애주기의 사람들에게 다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생애주기 단

계에 따라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한 사회적 관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관계들이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력도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여러 연령층, 생애주기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과 고독감에 대한 연구들이 뒤따라길 바란다.

또한 사회적 관계의 양과 질의 풍요로울 때 고독감이 감소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그러한 것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조언해 줄 말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실패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성희(1996). 도시기혼남녀의 사회적 관계망.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구본용, 김재환, 이수원, 장성수, 류완영(1990). 대학생활연구. Vol 7. 133-153.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김교현(1990). 충남대 학생생활연구. 제17집, 7-20.
- 박우동(1992). 고독의 귀인, 감정반응 및 대처행동.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성선진(1996).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의 관계.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미화(1996). 노인의 고독감과 사회적 지지.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승환(1990). 도시빈민의 사회적 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재순(1988). 청년기의 고독감.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숙(1996). 사회적 지원의 심리적 효과·주효과와 완충효과의 검증을 위한 이론적 모델과 방법론. 한국사회학 제 30집(여름호). 449-472.
- 이성희(1993). 한국의 이산가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자(1994).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과

-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최정아, 서병숙(1992).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원망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 12(No. 1). 65-78.
- Arling, Greg(1976). The elderly widows and her family, neighbors and frien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57-768.
- Asher, Steven R., Shelley Humel, & Peter D. Renshaw (1984). Lonelines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Vol. 55(No. 4). 1456-1464.
- Aukett, Richard, Jane Ritchie and Kathryn Mill(1988). Gender differences in friendship patterns. *Sex Roles*. Vol. 19(No. 1). 57-66.
- Bell, Brad(1991). Loneliness and value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6(No. 4). 771-778.
- Bell, Robert A.(1981). Worlds of friendship.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 Bell, Robert A.(1991). Gender, friendship network density and lonelines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Vol. 6(No. 1). 45-56.
- Chatters, Linda M., Robert Joseph Taylor, Harold W. Neighbor(1989). Size of informal helper network mobilized during a serious personal problem among black America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1. 667-676.
- Cohen, Carl I., Jeanne Teresi & Douglas Holmes (1985). Social networks, stress and physical health: a longitudinal study of an inner-city elderly popula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 40(No. 4). 478-486.
- Creedy, Robert F., William E. Berg, Roosevelt Wright Jr.(1985). Loneliness among the elderly: a causal approach. *Journal of Gerontology*. Vol. 40(No. 4). 487-493.
- Daniel Perlman(1988). Loneliness: A life-span, family Perspective. *Families and Social Networks*. California:Sage Publications. 190-216.
- Davis, Mark H., Stephen L. Franzoi(1986). Adolescent loneliness, self-disclosure,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a longitudinal inven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No. 3). 595-608.
- Eder, D., M. T. Halliman(1978).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friendship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3. 237-250.
- Esses, Marilyn J., Nam Sunghee(1987). Marital status and loneliness among older women: The differential importances of close family and frien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9. 93-106.
- Fischer, Lucy Rose(1983). Married men and their mother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Vol. 15(No. 3). 392-402.
- Fischer, Judith L., Donna L. Solle, Gwendolyn T. Sorell, Shelley K. Green(1989). Marital status and career stage influences on social networks of young adul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1(No. 2). 521-534.
- Hays, Robert B., Diana Oxley(1986). Social network development and functioning during a life trans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0(No. 2). 305-313.
- Hogan, Dennes. P., David J. Eggebean, Clifford C. Clogg(1993). The structure of intergenerational exchanges in American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98(No. 6). 1428-1458.
- House, James S., Kahn, Robert L.(1985). Measures and concept of social supports. *Social Support and Health*. Florida:Academic Press Inc.
- Hsu, Lorei R., B. Jo Hailey, Lillian M. Range(1987). Cultural and emotional components of loneliness and depression. *The Journal of Psychology*. Vol. 121(No.1). 61-70.
- Ishii-Kuntz, Masako, Karen Seccomb(1989). The impact of children upon social support network through the life cours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1(No. 1). 777-790.

- Johnson, M. P., Robert M. Milardo(1984). Network interference in pair relationships: A social psychological recasting of Slater's theory of social re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0. 893-899.
- Laosa, S. M., J. E. Brophy(1972). Effect of sex and birth order in sex role development and intelligence among kindergarte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6. 409-415.
- Lopata, Helana Znaniecki(1969). Loneliness: forms and components. *Social Problem*. Vol. 17. 248-261.
- Marks, Nadine F., Sara S. McLanahan(1993). Genders, family structure and social support among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5. 481-493.
- Marsden, Peter V.(1987). Core discussion network of America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2. 122-141.
- Milardo, Robert M.(1988). Families and social networks: an overview of theory and methodology. *Families and Social Networks*. California:Sage Publications. 165-174.
- Moore, Gwen(1990). Structural determinants of men's and women's personal net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55. 726-735.
- O'Bryant, S. L.(1988). Sibling support and older widower's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0. 173-183.
- O'Connor, Pat(1990). Adult mother/daughter relationship: a uniquely and universally close relationship?. *The Sociological Review*. Vol. 38(N0. 2). 293-323.
- Peplau, L. A., Daniel Perlman(1982). *Loneliness*. New York: Prentice-Hall.
- Powers, Edward .A., Gordon. L. Bultena(1976). Sex differences in intimate friendships of old 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39-947.
- Rands, Marilyn(1988). Change in social networks following marital separation and divorce. *Families and Social Networ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127-146.
- Renshaw, Peter D., Peter J. Brown(1992). Loneliness in middle childhood.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32(No. 4). 545-547.
- Rokach, Ami(1988).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a tri-level model. *The Journal of Psychology*. Vol. 122(N0. 6). 531-544.
- Russell, D., L. A. Peplau, C. E. Cutorna(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9. 472-480.
- Schmidt, Nancy, Vello Sermat(1983). Measuring loneliness in different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4(No. 2). 1038-1047.
- Stuewe-Portnoff, Greg(1988). Loneliness: Lost in the landscape of meaning. *The Journal of Psychology*. Vol. 122(No. 6). 545-555.
- Stokes, Joseph P.(1985). The relation of social network and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to lone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8(No. 4). 981-990.
- Stokes, Joseph, & Ira Levin(1986). Gender differenced in predicting loneliness from social network characteristic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No. 5). 1069-1074.
- Weiss, Robert 저 김진홍 역(1977). *고독의 사회학*. 서울:전예원.
- Wheeler, Ladd, & Harry Reiss, John Nezlek, J.(1983). Loneliness, social interaction and sex ro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45(No. 4). 943-953.